

## 주기도문 IX.

### 주기도문은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

[마태복음 6:13]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1. 영광송

이 부분을 '영광송'이라 부른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6:13절의 '영광송' 부분이 없다. 왜 일까? 복음서의 원본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처음에 가까운 성경원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즉,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서에 '영광송'이 추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식 예배기도문으로 사용하다가 '영광송' 부분을 추가로 넣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부분 역시 성령께서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추가 삽입했다고 믿는 것이 옳다.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은 중요하다.

#### 2.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님을 통해 기도로 표현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내용으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하게 소개한다. 예수님을 통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듣는 분이시고, 간구된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이다.

#### 3. 자녀된 인간의 정체성

주기도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각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녀된 인간의 정체성'에 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을 말한다.

#### 4. 주기도문이 마지막이 '영광송'으로 끝나는 이유

영광송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라는 사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말한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정체성은 '자녀된 신분의 인간' 뿐이라는 것이다.

#### 5.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스스로 깨닫고 찬송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이다. 성전건축의 간구 가운데 고백 된 다윗의 기도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역대상 29:13]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 6. 존재적 신앙의 완성 '소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검증된다.

내가 지니고 있는 '소유'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 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믿음의 검증은 '소유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결국 이것은 '안정감'에 대한 문제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적 안정감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한 완전한 보호와 공급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엄마품에 안겨진 '아기'의 상태이다. 이 아기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지만, 엄마품에 안겨 완전한 안정감을 누린다. 아기의 안정감의 기준은 한 가지이다. 엄마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 7.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소유'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해결된 사람을 말한다. 제자들을 보라. 결국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음성' 중에 자신의 음성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좀 더 편하게 대변해주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

#### 8.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남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 9. 큰 아들과 집 나간 작은 아들이 공통된 문제.

[누가복음 15: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누가복음 15:29, 31]

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야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두 아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분깃에 대한 요구이다. 작은 아들도 자신의 것을 요구했다. 큰 아들도 또한 자신의 것은 어디있냐고 요구했다. 이에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라는 고백을 했다.

무슨 말인가? '소유'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의 관심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에 대한 관심이었다.

#### 10.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이다.

#### 11.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 1)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항상 옳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 2) 내 것이 비워질 때 채워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문자로 아는 아버지, 책으로 아는 아버지는 소용없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보아야 한다. 그 때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만난 아버지의 격려의 눈길과 손길을 맛보아야 한다.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알 수 없다. 내가 쥐고있는 손을 피는 것은, 내가 움켜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말씀 하신다.

[신명기 1:31]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 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하나님의 돌봄은 아버지가 자식을 돌봄과 같이 돌보아 주셨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1:33]

당신들이 진 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 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라고 기록된 것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아와 같은 마음에 있다.

### 3)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혈루병 여인이 좋은 예이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혈루병 여인을 치료할 계획이 없으셨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었다.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녀는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 분이 나라이시며, 권세이시며, 영광이시다. 나의 모든사역과 일 가운데 예수님을 높여 드리고 예수님만 남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리고 임재하신다. 임재 속에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아들을 향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임재로 표현된다. 그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 곳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나타날 때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3:30]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라고 고백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미의 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송을 받았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영광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삶인 것을 기억하자.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자. 이 단계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임을 명심하자.